



《먼지, 사복을 묻다》의
이미영 감독

어느 누구도 사복에 대해 기록하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흐른 20여년 뒤
이십대의 한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사복으로 갔다...



여 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그녀는 껍이나 말수가 없었다. KBS 열린채널 프로그램에 사복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 위해 영화를 새로 편집해 방송국에 건네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말 수 없는 이 감독은 퍼 묻는 질문에 짝박하게 ‘영화에 다 나와 있다’고 대답을 대신했다. 원래 사진 찍는 사람이 사진 찍히길 싫어한다고, 한 영화를 위해 백여 명을 인터뷰한 그녀니까 인터뷰 당하기는 싫은 모양이다. 결국 다음 날 ‘먼지, 사복을 묻다’ 비디오테이프를 그녀한테 전해 받았다. 83분짜리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야 내 질문의 답이 다 여기 있음을 느끼며, 자신의 할 말 다 담은 영화를 만든 그녀가 궁금해졌다.

‘먼지, 사복을 묻다’라는 묘한 제목을 가진 83분짜리 이 다큐멘터리는 이미영 감독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낸 작품이다. 보통 ‘사복사태’로 불리는 1980년 4월 사복 탄광 노동자들의 항쟁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는 2002 인권영화제과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일단 제목이 주는 묘한 느낌이 궁금해 제목이 어찌 지어졌는지를 물었다.

“시사회 당일에 지어진 건데... 원래 ‘봄’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했어요. 느낌이 약한 것 같아서 ‘사복’이 들어간 제목이 되게끔 고민하다가 막판에 지었죠. 그냥..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복에 먼지가 많기도 하고, 작은 티끌하나지만 그 먼지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사복사건이 묻혀있었

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복에 관해 물어봤다는 뜻이기도 하고...뜻이 많아요.”

듣고 보니 더 멋진 제목이다.

박정희가 죽고 신군부가 막 들어서 계엄령을 선포하던 1980년. 그해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인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좌 사복 영업소에서는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인상에 항의해 광부와 그 가족 6,000여명이 들고 일어나 3일간 사복을 점거하였다.

80년 동원탄좌는 10년 만에 5억의 자본금을 120억으로 불리며 탄광의 이익을 독점하였으나 광부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쌀3가마가 고작이었다. 어용노조위원장 이재기는 79년 4월 동원탄좌 6대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무자격 대의원을 포섭하고 노조비로 대의원들에게 기생관광을 시켜주는 등 부정행각 끝에 당선된 후 회사와 짜고 임금인상 요구안을 반액으로 합의한다. 이에 분노한 사복 노동자들은 어용노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거 농성하였고 3일간 사복을 점거하였다. 항쟁 직후, 수십명의 항쟁 참여자들은 무차별





“이 영화는 사북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우리를 야만의 시대로 데려간 사람, 이 시대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이다.”

연행되고 처참한 고문을 당한 뒤 구속되었다.

사북항쟁은 그 후 역사 속에서 묻혀졌다. 어느 누구도 사북에 대해 기록하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흐른 20여년 뒤 이십대의 한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사북으로 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북항쟁을 다룬 최초의 본격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사실 사북항쟁 당시 5살쯤이었을 그녀가 이곳저곳에서 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그 시골 마을,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사건을 어찌 다룰 생각을 하였을까.

다른 영화를 찍으려 사북을 들렀다가 우연히 사북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려는 사람 없고 모두 쉬쉬 하더라. 어떻게 광부들이 계엄군에 맞서 3일간 도시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첩첩산중 이곳에서 항쟁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 대한 답찾기를 2년여. 그간 100여명은 죽히 인터뷰했을 거라 한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분을 물었더니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다 간경화로 촬영 중 돌아가신 분, 사건의 주도적 인물이 아닌 무고하게 잡히고 고문당한 분들을 꼽는다.

80년 사북사람들. 그간 그들은 고통스런 경험을 가지기도 말 못한 채, 혹은 서로를 반목하며 살아왔다.

영화제작 중 제일 어려웠던 점도 말하기를 꺼려하던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해야 했던 과정일 정도로 사람들은 사북사건 이야기를 꺼렸다. ‘80년 사북’이 어떻게 불려야할지도 정리되지 않은, 날 것의 역사 주인공이었던 그들은 ‘먹고 살고자 친 발버둥’이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소요사태가 되어 당했던 고통을 생생히도 기억한다. 그 아픔을 새삼스레 꺼내놓길 두려워하고 피하던 사북사람들. 그들에게 들이대졌던 카메라 앞에서 드디어 사북사건을 말하게 되고 공포과 고통과 미움을 말한다. 그리고 모인다. 20년 만에 모여앉은 자리에서 그들은 함께 위로하고 원수되었던 이들이 어색하게 악수하며 화해하고 눈물 짓는다.

이 ‘먹고 살고자 친 발버둥’은 다름 아닌 민주화운동이었기에 명예를 회복 받아야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게 된다.

지금 그들은 ‘사북노동항쟁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민주화운동보상 신청을 냈다.

이 영화 속에 그들의 변화가 고스란히 찍혀있기에 사북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고나서는 자신의 이전 생각과 말들을 보면서 숙스러워 하기도 한단다.

사북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채 전국에 흩어져 침묵하고 있던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고 그들 사이에 깊은 끈을 매워 화해하게 하였으며, 자신들의 항거가 민주화운동이었음을 깨닫고 명예회복을 위해 함



계 한, 사북사건의 2라운드를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영화. 누군가의 말처럼 잊혀졌던 사북을 부르고 달래며 안아준 '진혼의 굿판' 일지도 모르겠다.

이 의미 깊은 영화를 찍은 이십대 후반의 말 수 없는 당찬 여감독이 사북어르신들은 얼마나 기특할까. 부모님이 계시는 그녀의 고향 청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상영회를 할 때, 멀리 사북의 어르신들도 찾아오셨다고 한다. 그분들의 내심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녀의 부모님 손 맞잡고 무슨 말이 오갔을지는 모르지만 그 멀리서 찾아온 마음이 와닿는다. 부모님과 사북어르신들 함께 노래방에 가서서 단란히 보내셨다고 한다. 허리디스크로 복대를 하고 계시던 그녀 아버지가 복대를 풀고 노래방 마이크를 잡으실 만큼.

사북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몇 달씩 시골 옛 탄광동네에 들어가 박혀있는 딸을, 돈 되기 어려운 일하는 딸을 그녀의 부모님이 어찌 바라보고 있을까.

“부모님은 제가 영화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권운동한다고 생각하시죠”

열게 웃으며 그녀가 답했다.

영화 팸플릿에 쓰여있는 이미영 감독의 글이다.

‘이 영화는 사북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우리를 야만의 시대로 데려간 사람, 이 시대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쓰여지지 않은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굴절되고 묻혀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북사건 관련자들이 제작팀에게 인터뷰에 응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했다. 20여 년간 그들의 기억에 깊숙이 숨어들은 치욕을 털어내고 외롭고 긴 침묵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또 그녀는 80년, 그 민감함 상황에서 사북에서 일어난 항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정리할 뭇은 아니니 더 많은 사북에 관한 연구 글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2002년 사북은 카지노 완공으로 40년 사북탄광 역사는 막을 내렸지만, 20여년 전 사북사건의 관련자들은 지금 세상 앞에 서있다.

당시 강원도지사였던 이는 카메라 앞에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뭐 합니까”라 한다. 그에게 사북은 화석이다. 끝난 역사다. 하지만 화석속의 그들은 이 영화와 함께 살아 나왔다. 그리고 역사를 진행시킨다.